

# 자동차 부품 新시장 개척 확대... 올해 수출 234억弗 목표

산업부, 車수출 목표 984억弗 설정  
강경성 1차관, 코넥 서산공장 방문  
지원사업 범위 등 하위 법령 마련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수출품목담당관 및 제5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완성차는 물론 자동차 부품 역대 최대 수출 실적에 도전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동차산업 수출은 완성차 175억달러, 자동차부품 58억달러 등 총 233억달러로 1분기 중 역대 최대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수출 938억달러 중 약 25%는 자동차부품 수출로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는 우리 부품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 목표를 전년 대비 5% 증가한 984억 달러로 설정했고, 이 가운데 자동차부품 수출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34억 달러로 설정해 적극 지원 중이다.

산업부는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을 미래차 신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올해 1월 제정된 미래차부품산업법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미래차 부품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절차 등 하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고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4425억원을 차세대 고성능·고효율 미래차 부품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을 통해 기업의 운용자금도 공급한다.

한편 강경성 1차관은 이날 전기차 핵심부품 중 하나인 배터리·모터 케이스 등 미래차부품을 생산해 테슬라에 수출하는 주식회사 코넥의 서산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내연차 부품 제조사였던 코넥은 지난 2018년 경영환경이 악화됐으나 산업부의 사업재편 및 기술개발 지원 등

을 통해 미래차부품 기업으로 전환해 매출 중 70%를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강 차관은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려면 완성차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의 수출확대도 필요하다"며 "자동차부품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수출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내연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신속·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기업들이 미래차부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식품장관, 수급안정 위한 방역 철저 당부

"축산물, 국민 식생활서 중요한 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축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축산물은 국민 식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어진동 소재 정부청사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축산물 수급이 안정화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도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축산업계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 전반에서 축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 관련 정책을 고민할 때는 신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식품부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해,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이밖에,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정책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화학물질 배출량 줄고, 발암물질은 늘었다

환경부, 3832개사 화학물질 배출량  
국내 발암성 물질 배출 200t 넘어  
화학물질 전년비 6.4% 줄어들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화학물질 배출이 전년대비 줄었으나, 발암성 물질 배출은 오히려 200톤(t)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6일 공개한 '2022년도 3832개 업체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재작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배출량은 6만1035t으로 1년 전보다 6.4% 줄어 들었다.

2022년 화학물질 취급량과 배출량은 각각 19만8590t, 6만1035t으로, 2021년(21만5720t, 6만5213t)과 비교해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 업종별로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이 10t,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t,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각각 5t의 배출량을 기록했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등은 각각 3t이었다.

2021년에 비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7t,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2t, 의약품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t 등 배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전기·가스 공급업은 1.3t, 전기장비 제조업은 0.4t, 섬유제품 제조업은 0.3t 증가했다. 지역별 배출량은 경기 28.9%, 충남 17.6%, 울산 11.7% 등 3곳 지자체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단위 면적 대비 배출량은 울산, 대구, 부산 순으로 높았다.

한편, 화학물질이 전반적으로 감소

했으나 발암성 물질은 오히려 증가한 점이 특징이다. 2022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중 발암성 물질은 벤젠 등 70종이 해당된다. 이 70개 물질의 배출량은 1만287t으로 전년보다 238t(2.4%) 늘었다.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기준에 따라 발암성 물질을 그룹별로 보면 발암성 물질을 13종이 포함된 발암물질(그룹1)의 배출량은 531톤으로 18t(3%) 감소했다. 그러나 발암우려물질(그룹2A, 19종)과 발암가능물질(그룹2B, 38종)은 각각 전년 대비 238톤(3.6%), 18t(0.6%)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암물질 같은 경우 대부분 용제(물질을 녹이는 성분)로 많이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취급량이 줄더라도 배출량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산업부, 美 보잉사와 방산 등 고도화 논의

보잉사 연구개발 총괄책임자 접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16일 패티 창치엔(Patty Chang-Chien) 미국 보잉사(Boeing) BR&T(Boeing Research & Technology) 부사장 겸 총괄책임자 일행을 접견하고 항공·우주·방산 분야 협력 고도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산업부 지원으로 보잉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 개발 중인 미래형 항공 기술 '스마트 캐빈(2020~2024년, 118억원)'과 '민항기 건전성 진단용 AI(인공지능) 시스템(2022~2025년, 280억원)'이 향후 보잉의 여객기에 도입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

잉 측에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보잉 측은 지난 2019년 한국에 보잉 한국기술연구센터(BKETC)를 설립해 양국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투자 선례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작년 4월 산업부와 맺은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 고용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 확대 계획을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보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보잉항공기 최첨단 생산 시스템, UAM(도심항공모빌리티) 핵심기술, 항공우주용 반도체, 항공우주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분야 상호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무보, 中企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수출성장플래닛 프로그램 기업 모집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16일 중소기업을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수출성장플래닛(Plan it!) 프로그램'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수출규모에 따라 '이머징 스타'(연간 수출 100만달러 이하), '라이징 스타'(300만달러 이하), '사이닝 스타'(300만달러 초과) 등 3단

계 맞춤 우대지원을 통해 국내 강소기업을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도약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선정 기업에는 △수출 신용보증 특별 한도 부여 △보험·보증료 최대 90% 할인 △연 30건의 국외 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면제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무보는 대상 기업이 필요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 특별한도를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고, 보증비용은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해 자금길을 터줄 계획이다.

또 선정 기업은 무보의 보험·보증 항목을 최대 9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되며, 연 30건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등 각종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무보는 대상기업을 공개모집 후 서류·방문심사와 전문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단계별 지원대상기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무보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금감원 "대출 14일 이내 취소 가능해요"

중도상환보다 청약철회가 더 유리

금융감독원은 "청약철회의 행사기한·행사방법·효과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대상이므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금감원은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계약 필요성 및 조건을 재고해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인 '청약철회권' 행사 활용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한 뒤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대출금 일부가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허정윤 기자 zelkova@